조선시대 궁궐 후원 농경지(農耕地) 조영의 특성

정우진*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Studies on the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Rear Garden Farmland at Joseon Palace

Jung, Woo-Jin* · Sim, Woo-Kyung**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onfucian-oriented agriculture phase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reflected at the palaces, by analyzing constructional aspect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farmlands at the palace rear gardens. The objective sites were the rear gardens of Gyeongbok Palace, Changkyung Palace, and the outside of Sinmoomoon(神武門). This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e farmlands at the palace rear garden were constructed to self-estimate the year's harvest condition within the palaces. It was a part of the agriculture encouragement policy on governing the group of Joseon like publishing the Nongsajiksul(農事直說) and establishing the Chingyeongnye(親耕禮: king's own cultivation ceremony) and Kikokje(祈穀祭: the rite of praying for grain). In addition, farmlands of the rear garden were opera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tate almost until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yeongbok Palace rear garden's farmland which begun at the reign of Sejong(世宗) existed at the present Hyangwonji(香遠池) area. It was constructed in order to check the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ies. The rear garden's farmland in Changkyung Palace, which was executed during the reign of Seongjong(成宗), was constructed right after the initial Chingyeongnye of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it might be understood as the context of the king's own cultivation of the Jeokjeonchinkyung(籍田親耕). Injo(仁祖) dug for farmland in the ground of the Gyeongdeok Palace(慶德宮) though there was some stay palace, when his stay dragged out for too long. This bespeaks that those farmlands at the palace rear gardens were of great importance in the Joseon political history. The farmland near Gyeongnongjae(耕農齋), which was made during the reign of Gojong(高宗), inherited predecessor's walks of the promoting agriculture and exhibited spatial compositions such as the rear garden's farmland at Changkyung Palace. Secondly, irrigation, its water systems, the name of observatory to study farming[觀耕臺] and location requirements for farmland had something in common. It was assumed as universal forms of physiocracy-space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study, by considering aspects of operating about vegetable garden managed by eunuchs and of the orchard in palace to cultivate fruits for national ceremonies, it could be assumed that landscape architecture of royal palace in the Joseon Dynasty did not only focus on solemnity, orderliness and fanciness but also on the practical and productive which

Corresponding author: Woo-Kyung Sim,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Tel.: +82-2-3290-3044, E-mail: wksim@korea.ac.kr

was helpful in life. In addition, the diverse activities of productive landscape architecture led by the royal family in palaces, and the initiatively tested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ies by the king were considered as an aspect of the Korean traditional specific royal palace landscape architecture. That is considered sole landscape not only to love of the people but also the 'agriculture-first' principle which were absent from other nations.

Key Words: Gyeongbok Palace, Changgyung Palace, Donggwoldo, King's Own Cultiv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 내에 조성된 농경지 조영의 양상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유교적 농본 중심의 시대상이 궁궐 안에서 특수한 권농의 공간으로 반영되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경복궁 후원, 창경궁 후원과 경복궁 신문문 밖 후원이 되며,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궁궐 후원 농경지는 『농사직설』의 편찬, 친경례와 기곡제의 설행으로 대변되는 조선 통치집단의 권농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임금이 자신의 거주지인 궁궐 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능할 포지를 조성한 것이며, 국초부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각 궁궐에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후원 농경지 4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첫째, 세종 때 조성된 경복궁 후원 농경지는 현 향원지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선진농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포지로 조성되었다. 성종이 조영한 창경궁 후원 농경지는 조선 최초의 친경례 직후에 조성되어 적전친경의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인조는 경덕궁이 임시로 거처했던 시어소임에도 불구하고, 체류의 기간이 장기화되자 정전의 뜰을 파고 농포로 조성하였는데,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후원 농경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종이 조성한 경농재 일곽의 농포는 선대의 권농행보를 계승하면서 창경궁 후원 농경지의 공간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관수와 수체계, 관경대의 명칭, 입지에 있어서 일정한 공통점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농본공간의 보편적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원 농경지 외에 궁궐 내에서 내관들에 의해 관리되던 채전과 국가의 큰 제사에 쓰일 과일을 위한 궁궐 내 과수원의 운영 양상을 고찰하여 조선시대 궁궐 조경이 엄숙함, 질서정연함이나 장식성에만 치중되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생산적 조경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궁궐에서 왕실의 주도로 생산적 조경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임금이 출선수범하여 선진농법을 시험하였다는 점은 우리의 고유한 궁궐조경의 일면이 되며, 조선의 독자적인 궁궐문화로서 그리고 여타의 유교 국가에는 없었던 유일한 애민농본의 조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복궁, 창경궁, 동궐도, 친경

1. 서론

1. 이론적 배경

농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조선시대에 한해 농사의 풍흉은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안녕에 직결되는 중대사였다(김지영, 2002: 56). 농본주의적 통치이념을 국가 정책의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의 지배층은 국초부터 꾸준한 개간사업으로 농토를 확장하고, 『농서집요(農書輯要)』,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농사의 지침서로 배포하는 등 농업 생산량의 증대에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였다. 한편으로 사직 기곡제(祈穀祭), 선농제와 같은 농사와 관련된 기년행사를 임금이 친제로 거행함으로써 농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선농제 후에 임금

이 직접 적전에 나아가 밭갈이에 참여하는 친경의식은 통치자의 권농 의지가 표현된 단적인 예가 된다.

여기에는 왕세자, 종친, 제신(諸臣)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참여하였고, 임금의 쟁기질을 따라서 신민(臣民)이 공동으로 적전을 경작하는 의례가 진행되었다. 부대행사로 함께 밭을 간 사람들에게 술을 내리는 노주연(勞酒演)과 거가 행렬에서 기로(耆老), 유생, 기생들이 나와 가요를 바치게 하는 등 여타의 의례에서 볼 수 없는 일련의 절차가 따랐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항시 강조되어 오던 유교적 농본주의에 근거한 권농정책이 백성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의례적 형식에 의해 표현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국왕은 선농친제와 친경을 통해 대외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백성으로서 보는 자는 바라보고 차탄(嗟嘆)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¹⁾고 기록하여 임금이 쟁기를 잡고 친경하는 술선수법이 백성에게 큰 감동으로 와 닿았다고 전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의 통치집단이 표방했던 권농의 행보는 궁궐 안에 ‘관경(觀耕)’을 통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고, 임금과 신하가 농사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한 농포가 조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농사직설』의 농사법을 시험하기 위해 조성된 세종 시대의 논과 밭, 친경례의 연장선상에서 후원을 수전과 뽕나무밭으로 만든 성종 때의 농상지(農桑地) 등 궁궐 후원의 논과 밭은 국초부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운영되어 왔었으며, 역대 임금이 농본과 애민의 상징공간인 모의(模擬) 농경지를 자주 찾아 농사 사정을 살펴본 역사가 후원 조영과 그 맥락을 같이 했던 것이다.

2. 연구 목적

조선시대에 다양한 이유로 조영된 궁궐 후원 농경지는 백성과 더불어 농사의 시종을 함께 하는 장소로서 그 의미가 심원하다. 후원 농경지는 동시대의 중국의 자금성과 일본 황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의 독자적인 궁궐문화로서 의미가 있으며, 후원에 논과 밭을 조성하고 빈 땅에 양잠을 위한 뽕나무를 식재했던 역사는 도시농업의 시효로 조명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유교적 농본 중심의 질서체계가 반영된 친경례 이외에 ‘친림권농’의 의미를 지니는 농경지²⁾가 궁궐 내에 조영된 점은 궁원조경의 특수한 일면으로서 주목돼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비단 조경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내의 조경사적 측면에서 궁궐의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그간 궁원에 대한 논의는 건축, 조경, 사학 분야 등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적지 않은 결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궁궐 내의 후원 농경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다. 다만 정우진과 심우경(2011)에서 창경궁에 한정하여 후원 농경지의 공간구성을 다루었을 뿐이며, 해방 후 어느 시점부터 통설로서 회자된 근거 없는 ‘청의정 친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연구조차 진행된 적이 없었던 점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궁궐 후원의 농경지가 조영된 배경과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농본의 의미 공간이 되었던 후원 농경지의 가치와 의의를 구명할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내전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원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빈약한 이유로 복원정비에 소극적 대상이 되었던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궁원의 잃어버린 공간 원형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조선시대 궁궐 후원에 조영된 농경지가 되며, 후원 농경지가 조성된 주요한 줄거리가 되는, 임진왜란 전 경복궁 서현정 앞의 논밭, 창경궁 후원의 농포, 경복궁 신무문 밖 농능재 일곽 내에 있는 수전의 3개소가 분석되었다. 또한 경덕궁 회상전 텃밭, 궁궐 내의 군소 텃밭과 과수원이 궁궐 농경지의 큰 범주로 추가되어 궁궐에서 발생한 실용적 조경의 다층적 양상을 천착하였다. 이들의 가시적인 모습은 표 1의 도상자료를 통해 그 형태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도상자료로써 후원 농경지의 위치와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

표 1. 분석된 도상자료

도형명	소장처	추정 연대	비고
景福宮圖	서울역사박물관	영조 이후	·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 모습을 후대에 추정한 도면
景福宮全圖A	삼성출판박물관	1767~1772	
景福宮全圖B	소더비 작품	?	
景福宮全圖C	국립중앙도서관	영조 이후	
경복궁후원도	고려대학교 박물관	1888~1890	· 도형명은 소장처에서 임의로 작명한 것임 · 고종 25년(1888년)의 내전일곽의 재건공역이 진행 중이던 시점을 보여줌
奎章閣圖	국립중앙박물관	1776	· 정조 즉위년에 창건된 규장각을 김홍도가 그림
東闕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1824~1830	-
東闕圖形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1900~1908	-
北闕後苑圖形	국립문화재연구소, 규장각	1905~1908	· 1888년에서 1984년 사이의 경복궁 변화과정이 반영됨
西闕圖案	고려대학교 박물관	19세기 초반	-
瑞慈臺親臨賜宴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18세기 후반	· 1760년에 있었던 청계천 준천에 대한 기록을 그린 것으로, 다수의 이본이 있음 · 서충대에서 있던 사건만을 모은 『서충대첩』에 수록된 것임

다면 이를 토대로 문헌자료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궁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현종연간 『궁궐지(宮闕志)』(장서각 K2-4359)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³⁾에서 해당 기록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들 사료를 통하여 도상자료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용행태와 조영의 배경이 되는 농본의 문화적 맥락을 궁원에 조성된 농업경관의 공간요소에 대입하여 한층 입체적인 장소의 특질을 구명할 수 있었다.

2. 해석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조선시대에 궁궐 후원 농경지가 조성된 배경 및 이용실태 그리고 물리적 형식을 다루었다. 연구의 전개는 멸실된 후원 농경지 3개소를 중심으로 조영된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하되, 각 농경지별로 1) 조영 배경과 이용, 2) 공간구성의 체계를 따라 기술하였다. 한편, 인조가 즉위 초에 경덕궁에서 행한 회상전 앞 텃밭 경영의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의 사건이었고, 후원이 아닌 정전 앞에 조영된 경우로서 궁궐 농경지 조영사의 큰 줄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간략하게 조영배경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궁궐 내에 조영되었으나 친림 농경지가 아닌 부식용 텃밭과 진상 및 천헌(薦獻)을 위해 가꾸진 궁궐 내 과수원은 궁궐 안에서 이루어진 실용적 조경의 역사를 담고 있으므로 궁궐 농경지의 큰 범주로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사료분석을 통해 조영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궁원에 실재했던 농본경관의 복구에 효용성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궁궐 후원 농경지의 조영과 운영양상

1) 세종, 세조: 경복궁 후원

(1) 조영 배경 및 이용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한 세종은 미비한 경복궁의 건축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이로써 조선의 법궁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세종 이전에 개발된 후원 권역의 공간적 범위는 태종 12년(1412년)에 건립된 경회루 일대가 전부였으나, 세종은 연조 공간의 북쪽을 새롭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후원 농경지가 조영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세종실록』 19년(1437년) 9월의 기사에서 서속[粟] 종자 2홉을 심어서 한 섬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내용⁴⁾인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 이전부터 밭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복궁 북원에 논과 밭이 출현하게 된 사실은 세종 11년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탕으로 편찬된 농서로서, “오방(五方)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적성(適性)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라는 서문⁵⁾의 지적과 같이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작물마다 요구하는 적당한 환경과 재배법이 각기 다르며, 중국의 농서와 우리의 현실과는 모두 같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적해 보면, 후원의 논과 밭은 애초에 『농사직설』에 언급된 기장, 조, 피, 콩, 팥, 녹두, 보리, 밀, 참깨 등의 식량작물을 심고, 당시의 선진농법을 적용하여 실험해 보기 위한 시험포지로 조성된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세종은 종종 농서를 대신들에게 내려주었고⁶⁾ 『농사직설』이 반포·보급될 당시에는 각 고을 수령들에게 전교하여 『농사직설』의 경작법에 따라 농사지를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다.⁷⁾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세종은 자신의 농법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복궁 북쪽의 남는 땅을 새롭게 논밭으로 개간했으며, 매년 자신이 농사를 지켜본 경험으로 지방 수령들에게 농사직설의 농법대로 백성들을 깨우쳐 농사 짓도록 권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사료에 보이는 세종의 농경지 이용은 농사법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⁸⁾ 실록에서 세종은 여러 종류의 곡식 종자를 새로운 농사기술에 의하여 재배해 보고, 수확된 결과를 일일이 확인했던 것으로 기록⁹⁾되어 있으나, 말년에 세종이 강조한 것은 농사법의 여부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에 관한 것보다는, 가뭄이 심하여도 ‘사람의 공력[人工]’에 의해 수확이 결정되었다는 경험담으로서 근면함의 중요성을 보다 비중 있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밭 외에 수전(水田)에서 농사지는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세종은 자신의 벼농사가 정사년(세종 19년, 1437년) 한재에도 무척 잘 되었음을 여러 번 강조하며, 인력으로 가뭄과 같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하곤 하였다.

내가 후원에다 한 묘(畝)의 밭을 갈고서 인력을 다하게 하였더니, 비록 가뭄을 만나고 소출되는 곡식도 평년과 다를 것이 없었다.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세종실록』 22년 경신 3월 17일 기미)

정사년에 후원에 농사짓는 것을 시험하여 사람의 힘을 더 할 수 없이 다 하였더니 과연 가뭄을 만나도 한재를 일으키지 않고 벼가 매우 잘 되었다. 이것은 우연히 천재를 만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세종실록』 26년 갑자 윤 7월 25일 임인)

세종은 강녕전, 사정전, 교태전까지 이르는 정궁의 골격을 이룩하였고, 신무문 안쪽의 후원 일대를 개발하여 서현정(序賢亭), 충순당(忠順堂) 등의 정자와 함원전, 인지당, 자미당, 청연

루 등의 건물을 후원에 세웠다.¹⁰⁾ 당시 조성된 후원의 농경지는 서현정 앞에 있었다. 임진왜란 전의 경복궁 배치를 보여주는 경복궁전도류의 도형에서는 북쪽 궁장의 수문을 통과하여 궁 안으로 흐르는 물길이 있고, 어구 좌측에 서현정이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 물을 이용하여 관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조 즉위 후에는 세종 때보다 이 일대의 이용이 잦아지고 방문 횟수가 빈번해졌다. 실록에서는 경복궁 북원에 있는 밭의 조영자를 세조가 수양대군이었을 당시에 세종에게 청하여 자신이 후원의 못을 메우고 밭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세조에게 이 일대는 자신의 공과를 은근히 과시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세조는 북원의 논 근처에 취로정(翠露亭)이란 정자를 추가로 건립하고,¹¹⁾ 정자 앞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어 놓는 등 이 일대에 각별한 애착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의 논밭을 증전과 함께 둘러보는 일을 자주 하였고,¹²⁾ 취로정과 서현정을 신하들의 술자리로 자주 이용하여 세조 연간에 이용된 북원의 논과 밭은 세종 때의 농업 시험포지의 의미를 넘어서 후원의 경관적 요소이자 유희의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에 세조가 농사에 뜻을 두고 세종에게 청하여 후원의 못을 메워 밭으로 만들었는데, 이에 이르러 세종이 북원을 다 경작하려고 하니, 사람들은 모두 이를 어렵다고 말하였으나 세조가 홀로 이를 찬성하고는 친히 보습(耒耜)을 잡고 이를 사이에 다 갈았으므로 세종이 세조에게 농사를 내려 주었다. (『세조실록』 총서)

성상께서 농사짓는 일의 힘들고 곤한 것을 알고자 하여 후원에다 논 두서너 경(頃)을 개간하여 민사의 이르고 늦음을 보았는데, 기묘년 4월 22일에 양전(兩殿)에서 취로정에 같이 나아가서 논이랑에 새싹이 피고 비가 흠족한 것을 보시고는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시며 이르기를,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 되고 음식은 백성의 하늘이 되니, 내가 감히 농사짓는 일을 버리겠는가?” (『세조실록』 5년 기묘 4월 22일 계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중종은 경복궁에 임어해 있으면서 세종과 세조가 가꾸던 후원의 수전을 다시 경영함으로써 열성조가 후원에 전지(田地)를 가꾸던 미풍을 계승하였다. 중종은 “임금이 과연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감히 부세(賦稅)를 마구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고, 백성이 실지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지금 후원에 옛날 벼를 심던 전지가 있으니, 아마 선조로부터 사철 곡식이 성숙한 것을 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기만 하는 데에 그친다면 아무 도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후원 농경지 이용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¹³⁾

특히 『중종실록』 32년(1537년)과 34년(1539년)의 기록에서는 중종이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면서 후원을 유람하는 중에, 논 2, 3경을 경작하고 있는 모습과 그 앞에 서현정이 있었음이

묘사되었다. 후원의 수전을 돌아본 사신은 ‘화살을 맞힌 수에 따라 손님의 차례를 정한다’는 뜻의 사정(射亭)인 서현정의 명칭을 ‘농사를 살펴보는 정자’란 뜻의 관가정(觀稼亭)이라 이름 붙였다는 사건¹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신들은 서현정을 시사(試射)를 위한 시설물보다는 관경을 위한 특징적인 정자로 인식했던 것이다. 당시 명나라의 수도 북경의 황궁에는 황제가 농사를 체험하는 논밭이 없었고, 송대 이후로 황궁에서 농사짓는 전통이 사라졌으므로, 사신의 입장에서 조선의 왕이 가꾸는 권농지가 신기하고 감탄스러웠을 것이다.

두 사신이 수전 【취로정 남쪽에 있음】을 가리키며, 이응성에게 물기를, “본디 현명하신 왕은 덕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농사가 어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하므로, 상이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중종실록』 32년 정유 3월 14일 계사)

(2) 공간구성

임진왜란 이전까지 경복궁 후원에 충순당(忠順堂), 서현정(序賢亭), 취로정(翠露亭), 접송정(接送亭), 관저전(關雎殿) 등의 전각이 있었다. 이 전각들의 위치는 초기 경복궁의 모습을 전하는 배치도 형식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전도」를 비롯한 도형의 제작시기가 영조 이후가 되며, 과거의 모습을 상고(上考)하여 그린 추정도가 되므로, 후원의 주요한 정자들은 나타나지만, 논과 밭에 관한 정보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료에서 후원의 농경지의 배경으로 서현정과 취로정을 지시하고 있는 바, 그 대략적인 위치를 현재의 경복궁에서 찾아 보면 현 향원지 내부의 공간으로 모아진다(그림 1 참조).

2) 성종: 창경궁 후원

(1) 조영배경 및 이용

성종이 친경례를 구상¹⁵⁾ 하기 직전의 시점인 재위 3년(1472

그림 1. 경복궁 후원 농경지의 추정위치(현 향원지 내)
자료: 경복궁전도A

년)에 후원에 농사를 관찰할 수 있는 포지를 조성할 뜻을 밝혔다.¹⁶⁾ 이는 자신이 임어해 있는 창덕궁에 경복궁과 같은 농포가 없었기 때문인데, 신하들도 세종·세조 시절의 고사를 들며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후원 농경지 조성에 관한 논의는 몇 년 새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과 적전에서 의 친경례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다가, 동왕 10년(1479년)이 돼서야 후원 동쪽지역의 남는 땅에 양잠을 위한 뽕나무를 심게 하고 논을 조성할 것을 명하게 된다.

임금이 영사(領事) 신숙주 등에게 이르기를, “인군이 가색의 간난(艱難)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 내 후원에 곡식을 심어 그것을 관찰해 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세종께서 경복궁 후원에 종자를 심고 세조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니, 세조께서 이따금 친히 수고하셨습니다. 가색은 천하의 큰 이익인데 근래에 농토를 개간한 것이 비록 많기는 하나, 백성이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은 힘써 농사하지 않은 까닭입니다.”(『성종실록』 3년 임진 2월 1일 무진)

농상(農桑)은 나라의 큰 정사이니, 반드시 몸소 친히 보아야만 잠경(蠶耕)의 이로움을 알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외의 후원에 모두 뽕나무를 심고 또 그 땅의 마땅함을 헤아려 수전을 만들어 내관으로 하여금 맡아서 다스리게 하라. (『성종실록』 10년 기해 1월 8일 을축)

(2) 공간구성

창경궁의 수전은 역대 임금들의 시문과 신하들의 기문에서 권농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유지되어 「동궐도」와 「동궐도형」 등의 도상자료에서도 그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2 참조).

우선 「동궐도」를 살펴보면, 11등분으로 구획된 수전과 어구를 가로질러 남향하여 서 있는 관풍각이 나타난다. 관풍각 곁에는 내농포를 관리하던 내관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2칸짜리 전사(田舍)와 방지, ㄴ자로 꺾인 모정(茅亭)이 나타난다. 모정 곁에는 수고가 제법 높고 수형이 풍부한 낙엽수가 존

재한다. 또한 이 일대는 군사훈련 및 무과시험장으로 활용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모내기, 가을 추수 등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다용도 공간이므로 장식적인 식재가 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동궐도」상에 나타난 농경지 일원은 ‘농사일을 위한 시설군’, ‘집수 및 저수지’, ‘수전’, ‘관경대’의 4개소에 이르는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창경궁 농경지는 전사·모정 등의 건조물의 배치와 기능적인 식재에서 농사행위를 위한 실용적인 공간구성이 돋보이고 있다. 살펴보면, 농사일을 전담하는 내관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사에는 추가임에도 차양이 설치되어 있다. 관풍각 남동쪽에 있는 방지와 ㄴ자형의 모정은 한여름 농사짓다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된 일꾼들을 위한 장소로 여겨지며, 충분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낙엽수가 모정 주변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점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관수의 문제는 더욱 합리적인 면이 돋보인다. 수전이 입지한 곳은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에서 형성된 물이 합수되는 수량이 가장 풍부한 저지대로서, 백연담¹⁷⁾과 어구의 물이 농경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백연담은 그 위치로 볼 때 관수를 위한 저수지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백연담 동편에 어구와 연결된 작은 물길에 있어 못의 물을 내농포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 참조). 이 물길은 어구와 합류되어 흐르다가 암거를 통과하게 된다. 이곳 춘당대에서 문무과 시험이 빈번하게 시행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집춘문에서 춘당대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아래에 나타난 암거는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물길을 복개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 참조). 「동궐도」 이전의 그림에서는 암거가 나타나지 않고 이 위치에 다리만 놓여 있었는데, 정조 때 춘당대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지면서 석판교만으로는 부족하여 새롭게 공사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관풍각은 후원 농경지를 찾은 임금이 수전을 관경하기 위한 시설로서, 인조 25년(1647년)에 건립되었고 숙종 때 개수되었다고 전한다. 이 정자는 경복궁의 서헌정이나 취로정과 같이

그림 2. 창경궁 후원 농경지

그림 3. 창경궁 후원 농경지의 공간요소

자료: 동궐도

밭 갈고 추수하는 것 등을 임금의 직접 관망할 수 있도록 만든 관경대(觀耕臺)가 된다. 관경대의 기능상 수전에서 이루어지는 농경행위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풍각의 초석은 높이를 극대화시킨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경의 계절이 주로 더위가 심한 계절임을 고려하여 정자 아래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었고, 경관적으로도 그윽한 풍치를 자아내고 있다. 「서충대친림사연도」에서 묘사된 관풍각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관풍각은 서충대의 동쪽에 있다. 인조 25년 정해에 뜰에 걸쳐 각을 지었는데 금원의 여러 못의 물이 그 아래로 흘렀다. 북쪽에는 논(稻田)이 있고, 앞에는 연지가 있다. (『궁궐지』 관풍각조)

임금이 관풍각에 나아가 관여하면서 대신·각신·승지 등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색하는 것을 친히 봄은 곧 열조의 고사인데, 내가 일찍이 거행하지 못했기에 이번에 경들과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벼가 끝나자 여러 신하들에게 벼를 반사(頒賜)하였다. (『정조실록』 1년 정유 9월 3일 을축)

다음으로 「동궐도형」을 살펴보면, 수전의 위치에 ‘답십야미(答十夜味)’라 기입되어 있는 논이 표시되어 있다. ‘야미(夜味)’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을 구획단위인 ‘배미’를 음차한 말로서, 답십야미는 ‘무논[水田] 열 배미’란 뜻이 된다. 「동궐도형」

그림 4. 관풍각

은 「동궐도」 제작 후 약 80년이 지난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풍각과 전사 등의 농경을 위한 부속 시설이 모두 사라져 있고, 고종 1년(1864년)에 있었던 춘당대 일원의 수축공사¹⁸⁾로 백연담의 호안이 석축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조 연간에 제작된 「서충대친림사연도」(그림 2의 c)와 정조 즉위년에 김홍도가 그린 「규장각도」에서는 창경궁 북쪽 후원지대에 밭[旱田]이 나타난다(그림 5 참조). 먼저, 「서충대친림사연도」에는 11개의 논이 3열로 배치되어 있고, 어구가 백연담의 위아래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암거 없이 어구가 논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백연담 위쪽에 다리 하나가 놓여 있다.¹⁹⁾ 이러한 묘사는 「동궐도」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백연담 북쪽에 있는 밭과 그 위에 위치한 작은 전각 한 채는 「동궐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각으로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각은 헌종 연간 『궁궐지』에서 경성각(慶成閣)이란 명칭으로 발견되는데, 관풍각과 더불어 임금의 관경행위를 위한 전각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관풍각이 논을 바라보며 관경했던 장소였다면, 백연담 북쪽에는 관풍각과 마주 보는 위치에는 경성각이 있어서 밭의 농사짓는 것을 관망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궁궐지』 경성각조에서 그 위치를 어수당 동쪽에 있었으며, 관풍각과 마주 보고 있다고 지시하고 있으므로 「서충대친림사연도」에 나타난 밭의 관경을 위한 전각은 경성각으로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성각이 「동궐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의문인데, 정조 말년에서 순조 연간 어느 시점에 밭이 사라지면서 철거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규장각도」를 살펴보면, 밭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작물이 심어져 있다. 그림의 구도상 경성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밭 남쪽에 백연담이 위치하고 있어서 경성각의 밭을 소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규장각도」가 그려진 1776년 이전에는 백연담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한

그림 5. 규장각도에 나타난 밭

전이, 남쪽에는 수전이 있었으며, 각각의 관경대로 경성각과 관풍각이 존재했었다고 판단된다.

저곳에서 뜰어다가 어수당[魚水] 동쪽에 지으니, 수물은 녹수를 이루어 바람이 절로 나네. 명명한 뜻 모름지기 깊어 따질 것 없네. 다만 앞쪽의 관풍각 보면 알게 되리라. 여름에 남정에 오르니 시우(時雨) 내리더니, 가을에 서각에 오르니 벼를 수확하는구나. 이 몇 되지기로 농가의 풍흉을 아나니 매양 간난을 원하고 마음 놓지 않는다네. (『궁궐지』 경성각조)

3) 인조: 경덕궁[경회궁] 회상전(會祥殿) 일곽

인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경덕궁 내에도 농경지가 조성된 적이 있다. 회상전 일곽(그림 6 참조)의 밭이 그것인데, 광해군 때 영건된 경덕궁에는 애초에 풍흉을 기쁠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광해군을 반정으로 폐위시켜 등극한 인조는 재위 3년(1625년)부터 10년(1632년) 10월까지 경덕궁에 머물면서 선대의 임금이 모범적으로 경영했던 궁궐 안의 농경지를 경덕궁에도 조영하고자 했고, 이에 승전전의 동북쪽에 있는 정전(正殿)인 회상전 마당에 작은 밭을 만들고 잡곡을 길렀다. 인조 10년 이후에는 주로 창덕궁과 창경궁에 입어 해 있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창경궁 후원의 농경지를 농정의 중심처로 이용하였으므로 이후의 기록에서 회상전 농경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상이 회상전 앞에서 밭 몇 이랑을 파고 볍씨와 대두(大豆)·소두(小豆)의 종자를 파종하여 풍흉을 점쳤다. 중관(中官)이 물을 대러 하니, 상이 멈추도록 명하고 이르기를, “그저 우로를 맞으며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체험해 보고 싶다. 어찌 다른 물을 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백성에 대해 염려하는 뜻이 이와 같았다. (『인조실록』 6년 무진 8월 13일 신축)

그림 6. 경덕궁 회상전 일곽

자료: 서궐도안

그러나 상기된 궁궐 후원 농경지의 사례에 견주어볼 때 인조의 경덕궁 회상전 농포조영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조선시대 임금의 농경지 조영과 운영의 방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임어처에 농경지가 없던 적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인조는 경덕궁이 임시로 거처하는 시어소임에도 불구하고 채류의 기간이 장기화되자 정전의 뜰을 파고 농포로 조성한 것은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후원 농경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권력기반이 미약했던 인조는 왕권의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정전의 뜰에 밭을 일구는 과격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궁궐지』 회상전조에는 정조가 지은 「회상전춘첩(會祥殿春帖)」이란 시에 관잠(觀蠶)의 장소로 회상전을 노래하고 있어 의문을 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회상전에서 진잠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궁궐지』에 수록된 시문에서 ‘관잠하는 큰 일로 동산은 빛나네[觀蠶盛事濯龍園]’, ‘큰 전(殿)에서 관잠을 위해 밭이 드리워져 있네[唐殿觀蠶寶苜宜]’라는 구절은 회상전이 어느 시점에 잠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회상전 서편에는 무일각(無逸閣)이라는 작은 전각이 붙어 있다. ‘무일(無逸)’은 『서경』 「무일」 편에서 비롯된 경구로서, 『시경』 빈풍 「칠월」과 더불어 ‘군왕은 가색의 어려움을 알아야 하며, 농사일에 근면해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하는 전거로 자주 인용되었다. 주공이 성왕에게 경계한 ‘군자는 편안하지 않음에 처해야 한다[君子所其無逸]’라는 ‘무일’의 가르침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수신의 덕성으로 인식되어, 경덕궁의 ‘무일각’ 외에도 창덕궁 ‘무일전’이나 태종 때에 경복궁의 정전이었던 ‘무일전’이란 명호(名號)의 배경철학이 되었다. 때문에 경덕궁에 머무르고 있는 인조는 새롭게 농경지의 장소로 무일편의 교훈이 깃들어 있는 무일각의 뜰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군자는 편안하지 않음[無逸]에 처해야 한다. 먼저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편안함을 취해야 비로소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바를 알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건대 그 부모는 힘써 일하고 농사짓지만, 그 자식들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채 편안함을 취하고 함부로 지껄이며 방탕 무례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업신여겨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²⁰⁾ (『서경』 「무일」)

4) 고종: 경복궁 경농재 일곽

(1) 조영 배경 및 이용

임진왜란 이후로 복구되지 않던 경복궁은 고종 2년(1865년) 대원군이 주도한 중건공사를 통하여 270여년 만에 범궁의 위상을 찾았다. 그러나 중건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고종 10년(1873년)과 13년(1876년)에 있었던 화재로 내전 일대가 전소되었고,

이의 재건공사의 기간 동안 왕은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되었다. 살펴보면, 고종은 총 4회에 걸쳐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경복궁 1·2차의 화재로 인한 내전권역의 공사가 재정악화로 지연되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고종은 성급히 이어할 뜻을 밝히고 경복궁을 찾게 된다. 이는 신무문 밖 후원조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서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우선 네 차례의 경복궁 임어기간 동안 전각의 활용과 변화내용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임어기에는 경복궁의 중건 완료와 함께 새로운 궁궐에서 전각의 건립의도에 맞는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 22년(1885년) 이어한 후부터는 두 번째 임어시기까지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내전일곽의 전각이 소실되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강녕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동은 흥복전 이북의 전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모든 활동의 중심은 흥복전의 북쪽 영역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내전일곽을 복구한 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북쪽영역에 새로운 전각을 짓게 되었다(이혜원, 2008: 18).

즉, 고종의 정치적 터전이 되었던 경복궁 최북단의 공간은 국초부터 충순당, 서현정, 취로정 등의 전각이 있었던 후원권역이었는데, 고종 대에 건청궁과 향원정이 신건되면서 정사의 중심지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종 후기에는 경복궁 내전의 전각 사용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대부분 경복궁 북쪽에 위치한 흥복전, 만경전, 건청궁, 함화당, 집옥재 등에 집중되었다. 이렇듯 과거 후원지역이었던 경복궁의 북쪽 영역이 정사의 중심공간으로 사용된 것은 후원 권역이 보다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후원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사적인 공간도 추가로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신무문 밖 공지(空地)가 새로운 후원의 중심권역으로 개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무문 밖의 후원은 고종 초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새롭게 조성된 곳으로 초창 당시에 융문당·융무당 영역과 북쪽의 오운각 영역이 있었다. 이곳은 왕의 휴식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기도 했지만 문무를 시험 보고 일상적인 소대나 사신 접견이 이루어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 2차 중건 시에 경농재 일곽이 추가되어 후원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시기 경농재(慶農齋) 일곽의 조성(1893년)은 1888년 대내의 영건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발생한 후원권역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경농재는 신무문 밖 후원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후원정사의 핵심처로 부상하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된 시점에 건립된 것이었다. 당시 고종은 경농재와 대유헌(大有軒)을 편전처럼 사용했고, 여덟 구획의 논을 만들어 창경궁 후원 농경지의 공간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영역

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로써 경복궁 신무문 밖 후원 농경지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 공간구성

고종 연간에 조영된 신무문 밖 후원의 모습은 1888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복궁후원도」와 1905년에서 190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북궐후원도형」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7 참조). 「경복궁후원도」는 고종 25년(1888년)의 내전일곽의 재건공역이 진행 중인 시점의 현황을 보여주는 도형으로서, 고종 초기 경복궁 중건이 마무리된 시점에 조성된 후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를 살펴보면, 추성문과 금화문의 북쪽에 ‘답(沓)’이라 표시된 원형의 논이 나타나고 있는데, 8개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다. 논의 남서쪽으로 출수로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수는 하단에 있는 우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1890년대에 조성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북궐후원도형」에서는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일대에 경농재(慶農齋)와 대유헌(大有軒), 지희실(至喜室), 양정재(養正齋)가 새롭게 건립되어 있고, 원형의 논이 사다리꼴의 논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경농재와 대유헌은 고종 30년(1893년)에 건립된 전각으로서, 경농재에는 관풍루(觀豐樓)라는 누각이 돌출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누의 전면은 트여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놓아서 논을 작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관풍루는 창경궁 후원에 있는 관경대의 기능을 갖은 관풍각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물로 여겨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궐후원도형」에 나타난 경농재 일곽은 기존에 있던 도청(都廳), 중일각(中日閣)이 전혀 새로운 건물로 대체된 것뿐만 아니라, 「경복궁후원도」에서 나타난 상황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경농재 일곽은 사방이 담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원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분리된 공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이혜원, 2008, 130). 둘째, 원형에서 사다리꼴로 바뀐 논은 4개의 작은 구역과 4개의 큰

그림 7. 경복궁 신무문 밖 후원 농경지

구역으로 구획되었고, 위에는 샘으로 보이는 원형의 입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일설에는 이 논의 명칭이 ‘팔도배미’이며, 8개로 구분된 것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여 각 도에서 들여온 종자를 심었다고 하는데(청와대경호실, 2007: 79), 사료에서 이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셋째로 초기 후원의 모습과 다른 점을 언급하자면 관경대의 기능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관풍루는 기능과 명칭이 창경궁 내농포의 관풍각과 매우 유사하다. 고종은 두 번의 경복궁 화재로 3차 이어의 시점인 188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18년 동안 창덕궁에 임어해 있었다. 이 기간 중에 창덕궁과 창경궁의 후원을 이용하며 눈여겨 보아두었던 건물들과 공간구성을 가져와 화재 후 진행된 경복궁의 중건에 반영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건청궁이 될 것이다. 고종은 건청궁 영건에 있어 창덕궁 주합루와 서향각을 본 뜬 건물을 짓길 원했다고 하며²¹⁾, 한편으로 연경당과 같은 조용한 휴식 목적의 건물을 모방한 구성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고종은 경농재 일곽이 개수될 때 창경궁 관풍각의 공간적 정감을 가진 건물을 추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풍각의 기능과 명칭을 모방한 관풍루가 건립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궁궐 후원 농경지는 경복궁 취로정 앞의 논밭이 가장 먼저 조영되었고, 이후 창경궁 후원에도 농경지가 조성되어 적전 친경의 상징성을 계승하면서 임금이 친히 한 해 농사의 작황을 가늠하는 포지의 역할을 하였다. 경복궁 중건 뒤에는 경농재 일곽 내에 여덟 개의 구획으로 조성된 논의 2차례에 걸쳐 조영되었던 바, 애민, 권농, 실용과 자급자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궁궐 친림 농경지는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궁궐의 필수적 조경요소로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궁궐 내의 채전과 과수원

1) 구궁(舊宮)과 시어소(時御所) 내의 텃밭

조선시대에 후원 농경지가 조성된 이래로 궁궐 곳곳의 빈 땅에는 나인, 내관 등 궁궐에 속한 사람들의 부식을 위한 텃밭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채소밭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궁궐 공한지 텃밭을 만드는 것이 관례로 되어온 것으로 말하고 있어, 임금이 살피는 후원 농경지가 풍흉을 가늠하는 농정의 맥락으로 운영된 것과는 달리 끼니를 위한 실용적 목적의 채전이 아랫사람들에 의해 관리되며, 궁궐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치화가 ‘월내의 채소밭이 15개처나 된다.’고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일부터 경종(耕種)하던 것이니, 어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중종실록』 9년 갑술 3월 14일 정축)

그러나 이들 텃밭은 분노로 시비(施肥)하여 불결하다는 이유로 철폐하라는 논란이 있었다. 권농을 크게 강조하던 중종은 관례가 되었던 궁궐 공한지의 텃밭을 눈감아 주기도 하였으나, 분노로 시비하는 것만큼은 어찌지 못하고 금지하도록 명했다. 『중종실록』 9년 3월의 기록에 나타난 내관들이 가꾸던 텃밭은 문소전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 위치는 임진왜란 전까지 유지되던 경복궁 후원 농경지의 자리였던 현 향원지 일대가 되어, 당시 후원에서 수전, 한전, 채전 조영의 구체적 양상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료의 내용 중 김응기의 지적과 같이 명나라의 궁궐의 뜰은 모두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 농사를 지을만한 공간이 없고, 궁터가 있다 한들 경종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언급에서 조선 궁궐 농경지의 유일한 위상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다.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문소전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분노를 모아다 채소를 심기도 하고, 또 월내에 조굴이라도 빈 땅이 있으면 모두 경종을 하니, 이는 지난날 궁궐(空闕) 때에 하던 짓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월정(闕庭)에는 모두 벽돌을 깔았거니와, 월정에 비록 작은 공지가 있다 한들 어찌 경종을 할 것이며, 하물며 제향하는 근처에는 더욱 부당한 일이니 일절 금지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미처 알지 못하였다. 금하도록 하라.”하였다. (『중종실록』 9년 갑술 3월 14일 정축)

채전 조영의 다른 양상으로, 임어처가 아닌 시어소나 임진왜란 후 건물이 모두 사라져 ‘구궁(舊宮)·구궐(舊闕)’로 불리던 경복궁의 부지의 상당 부분이 농사짓는 밭으로 활용된 점은 궁궐에서 발생한 실용적 조경의 일면으로 파악돼야 한다. 아래 『일성록』의 기사에서는 정조의 임어처가 아니었던 경복궁과 경희궁에 밭두둑이 끝없이 이어지고 각 전각의 뜰에 개간한 밭이 많았다고 기술되어, 조그만 땅만 있으면 남새밭을 만들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심었던 우리 선조들의 습성이 궁궐에서도 예외 없이 확인된다고 본다.

궁궐은 구궁과 시어소를 막론하고 채소(灑掃)를 엄중히 하는 데는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가 들으니, 경복궁 광화문 안의 부지가 막혀 있는 땅이 되어 갈아서 농사를 짓다가 혹 거동하는 길을 침범하기도 하고 더러운 흙이 묻어서 궁궐의 섬돌까지 지저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동쪽의 밭두둑이 끝없이 이어져 춘추에 밭 갈고 김을 매어 남지하게 매매하는 것을 해마다 상례로 삼고 이미 농포가 생활을 꾸려 가는 장소가 되었으니 사체에 있어서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신이 또 연전에 삼가 경희궁 안의 각 공해(公廨)의 뜰을 보니 역시 개간한 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 1월 22일 정묘)

구궁의 부지 내의 포전은 경복궁 중건 직전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승정원일기』 고종 1년(1864년) 2월의 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빈터였던 경복궁 어느

장소에 농경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농포(內農圃) 남채전(藍菜田)'이라 부르고 있다.

경복궁 내농포의 채소밭 바깥을 간 곳에 나무를 심으라고 삼영(三營)에 분부하라."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 2월 29일 경자)

경복궁을 일단 증건하면 내농포 남채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토지 가격 및 경계를 정하는 일을 호조와 한성부에 분부하라. (『승정원일기』 고종 2년 기해 5월 20일 갑인)

이러한 세종에서 고종 1년(1863년)까지 유지되던 서현정 앞 농경지는 영조 말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양도」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8 참조). 「한양도」는 현존하는 도성도류 중에서 경복궁에 발이 나타나는 유일한 그림으로서 커다란 발이 취로정과 서현정 앞에 있던 농경지의 터에 새롭게 조영되어 있다. 같은 시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던 후원 농경지가 창경궁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도성도류에 표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당시 영조가 추진한 경복궁 유지(遺址)에서의 정치적 활동²²⁾이 반영되어 기록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궁궐 내 과수원

궁궐 내에 과일을 수확하기 위한 과수원이 조성된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궐 안에서 채전농사를 지은 것이 나인과 내관의 부식을 위한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궁궐 내의 과수원은 임금에게 진상되거나 잔치용으로 내어갈 과일을 자급할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사전에 등재된 큰 제사에 천신(薦新) 및 천헌(薦獻)하기 위한 과일을 장만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궁

그림 8. 한양도에 나타난 농포

자료: 한양도(1760년대 제작, 개인소장), 이찬과 양보경(1995)에서 재인용

그림 9. 창덕궁 내의 과수원

자료: 동궐도

안의 과수원은 사포서에서 관리하였는데, 실록에서는 궁궐 안의 과수원[내포: 內圃]에서 올린 과일은 잘 익었는데 도성 인근에 있는 궁전(宮田)의 과수원[외포: 外圃]의 과일이 제대로 진상되지 않거나 잘 익지 않은 과일을 올려 해당 관원을 추고하는 내용이 자주 나타난다.

궁궐 내 과수원의 모습은 「동궐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부에 과수로 보이는 화관목이 다수 식재된 공지가 그것인데, 내부에 과수를 지키는 초가 형태의 과수간(把守間) 두 채가 보여, 이 과수원을 정성스럽게 보살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사료에서는 창덕궁 서쪽에 작은 공간의 과수원이 있었다고 하며, 궁궐(空闕)이나 시어소의 부지에 추가로 과수원에 준하는 과수를 심도록 한 내용도 발견되는 바, 조선시대에는 궁궐 안에서 작물과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을 자급하기 위한 농지도 마련되어 실생활을 위한 생산적 조경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산(東山) 【곧 후원이다.】의 여러 가지 과일을 장차 익기를 기다려서 천신하러 하는데, 오늘의 잔치 【중국 사신을 위하여 경희루에 청하여 잔치하였다.】 때에 하인이 어저러이 드나들어 혹 밭아 다치고 부러질 것이 염려되니, 병조와 의금부를 시켜 검찰하라. (『인종실록』 1년 을사 5월 4일 을축)

상림원에서 제하기를, (중략) 서울 안의 과수원으로는 다만 창덕궁 서쪽의 협착한 땅을 쓰고 있으므로(京中果園, 只用昌德宮西窄地), 각종 과목을 널리 재배하지 못하여 국가의 수용에도 부족하오니, 연희궁·장생전·연화원 등 기지에도 아울러 이를 심게 하소서. (『세종실록』 10년 무신 12월9일 병술)

똑같은 포전인데 내포(內圃)에서는 잘 익은 과일을 기일에 맞추어 진전(眞殿)에 천헌한 반면, 외서(外署)는 처음엔 절기가 빠르다고 하여 봉진하지 않았고 재차 신칙하는 하교가 있고서도 또 봉진하

지 않았다. 때문에 막중한 묘구에 천천하는 물건에 대해서 불경함을 초래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엄한 감처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일성록』 정조5년 신축 6월 2일 계유)

3. 후원 농경지의 공간특성과 유사점

궁궐 후원 농경지는 공간구성 및 후원의 주변 영역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유사성이 도출되는 바, 이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입지 특성

경복궁과 창경궁 후원에 조성된 농경지는 내전 권역 북쪽의 미개발된 땅을 활용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의 지형적 특징은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물이 풍부한 곳으로서 관수에 유리한 장소가 된다. 또한 후원 농경지가 입지된 곳이 넓은 개활지의 한 가운데다 보니, 논밭 인근의 땅은 문무과 시험, 활쏘기 등 국가적 행사를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처음 농경지가 후원에 들어설 때는 일대에 전각이나 시설물이 거의 없거나 극히 일부 존재했는데, 차츰 농경지가 이용되고 주변의 땅이 정치적 행사장으로 활용되면서 주변에 새로운 정자와 전각들이 건립된 것도 농경지 입지 이후에 나타나는 동일한 변화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궁궐 후원은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이 된다. 즉, 내전권역에 인접한 후원의 전반부는 정치적 성격의 공간이 되며, 뒷부분은 왕실의 사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후원의 진입부에서 중심부에 이르는 권역은 정치적 활동이 빈번히 이뤄지는 곳으로서, 경복궁에서는 교태전 북쪽부터 경농재, 용문당·용무당 일곽까지 해당되며, 창덕궁에서는 주합루, 춘당대에서 시작하여 어수당, 애련정 일대까지 소급될 수 있다. 반면, 경복궁의 최북단인 오운정 영역이나 창덕궁 옥류천 영역은 휴식을 위한 장소로 왕실의

구성원이 아니고는 출입이 제한되는 사적인 장소가 된다(표 2 참조).

후원에서 농경지가 입지하는 장소는 후원일지라도 정치적 성격을 띤 장소가 선정된다. 경복궁과 창덕궁·창경궁의 농경지는 경농재 일곽과 춘당대 일대로서 국가적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후원 농경지가 궁궐 내에서도 일반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 조성된 것은 임금 자신의 행적을 과시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이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켜 권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지배질서를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수와 수체계

임진왜란 전 경복궁에 조성된 논밭과 창경궁 북쪽의 후원 농경지에는 관수를 위한 수체계의 구성에서 방형의 지당이 농경지 곁에 축조되어 농업용 집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세종 때 조성된 경복궁 후원 농경지 일원은 서현정 앞에 있었으나, 세조 연간에 취로정을 비롯한 정자와 연못이 근처에 추가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 전의 배치를 보여주는 「경복궁전도B」를 살펴보면, 신무문 동쪽의 수문(水門)에서부터 내려온 물길이 못을 통과하여 흘러서 다시 경회지쪽으로 흐르고 있다. 「경복궁전도C」에서 묘사된 바도 대동소이 한데, 못의 양 옆에 충순정, 서현정과 취로정, 접송정 각각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표현되고 있다. 「경복궁도」에서도 북쪽 궁장에 있는 수문을 통과하여 내려오는 물길이 못에서 집수되었다가 흐르는 수계의 구성은 동일하며, 여타의 경복궁전도류의 도형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참조).

임진왜란 전 경복궁 후원의 농경지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고증된 적이 없으나, 조선왕조실록에서 서현정이나 취로정 앞으로 지시하고 있으므로 그 대략적인 위치는 현 향원지 내부로 추정될 수 있다. 최초 입지 당시에도 경복궁에 물이 귀했던 점을 고려하여 교태전 북쪽의 후원 권역에서 지대가 낮은 곳이면서 북수문에 인접하여 수요소가 가장 풍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리 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못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논밭을 조영한 치적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 세운 정자인 취로정의 수경시설이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집수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통상적인 농경지의 관수개념상 연못이 출수되어 나가는 어구를 끼고 입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복궁의 후원에서 농경지를 끼고 흐르는 수체계는 이를 전범으로 하여 조성된 창경궁의 후원 농경지 구조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영조 때의 창경궁 후원 농경지의 모습을 보여

표 2. 궁궐의 공간구분 및 공간성격

공간 구분	궁궐 대내			
	내전 권역		후원 권역	
성격	정치적 공간	사적인 공간	정치적 공간	사적인 공간
	외조, 치조	연조	외조, 치조	연조
기능	정전 및 편전 공간, 문무과시험, 신하 인견, 사신 인견, 국가적 행사	연침 공간	문무과시험, 신하 인견, 사신 인견, 국가적 행사, 연회, 기우제	왕실의 여가 및 휴식의 공간
복궐 (고종)	근정전, 경회루 등	강녕전, 교태전 등	건청궁, 경농재, 용문·용무당 등	오운각 영역
동궐	인정전, 내각 등	대조전, 통명전 등	규장각, 어수당, 춘당대 등	옥류천 영역

그림 10. 임란 전 경복궁 농경지 추정 위치와 관수 체계

그림 11. 집수 및 저수 용도로 축조된 백연담의 수계

주는 「서충대친립사연도」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온 물길이 집수 지인 백연담을 통과하여 흐르고, 어구 곁에 11개로 구획된 논에 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결도」에서는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백연담과 어구가 분리되어 있고, 존터정 부근에서 내려온 물길이 남쪽으로 흘러 11개의 논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다. 그림 모두 공통적으로 논 곁에 어구의 물길을 두어 관수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바, 경복궁 농경지와 일맥상통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11 참조).

한편, 이 그림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백연담이 농업용 저수지로 묘사된 것이다. 백연담은 지대가 높은 서쪽의 창덕궁 후원에서 내려온 물로 채워졌을 것으로 보이나, 백연담 바닥에 샘이 있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볼 때, 한재에도 백연담에 저장된 물로 충분히 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기록에서는 백연담을 가리켜 제방(堤防)을 뜻하는 '제언(堤堰)'으로 인식하고 있어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백연담의 존재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후원의 연지가 바야흐로 가뭄을 당하였으나 그래도 수근(水根)이 있어 또한 능히 갈고 씨뿌릴 수가 있다. 가까운 데서 비롯하여 먼 데에 이르는 법이니, 그 제언의 이로움을 미루어 알 만하다. (『영조실록』 19년 계해 윤 4월 2일 을묘)²³⁾

이상과 같이, 성종 때에 조성된 창경궁 농경지는 경복궁 취로정 앞의 농경지가 갖는 공간구성과 수체계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임진왜란 전에 설치된 농경지에서도 궁

궐 북쪽에서 내려온 물이 지대에서 집수된 후 농경지에 관수되었던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3) 관경대의 명칭

후원 농경지 주변에는 관경을 위한 전각이 세워지고, 그 명칭은 대부분 풍년을 기원하는 염원이 반영되어 편액되었다. 창경궁 농포의 관경대인 관풍각(觀豐閣)은 '풍년이 든 논을 바라 본다'는 뜻이며, 백연담 북쪽 한전에 위치한 경성각(慶成閣)은 '완성됨을 기뻐한다', 혹은 '가을에 의(義)로써 성취한다'는 의미로 풍성한 가을수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후원 농경지가 있는 경복궁 경농재(慶農齋) 일곽 내의 전각 명칭도 일맥상통하다. 경농재에 붙은 누대인 관풍루(觀豐樓)는 논을 마주하면서 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고종이 창경궁 후원에 있는 전각 명칭을 그대로 대입시킨 경우로 생각된다. 경농재 동쪽 건물인 대유헌(大有軒) 역시 상량문에서 '오곡이 익은 것을 대유라 한다[五穀熟曰大有]'²⁴⁾고 하여 풍년을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4) 멸실 방법

세종 때 조성된 농경지는 임진왜란 후에도 영조에 의해 한전으로 다시 조성되었고, 고종 2년(1865년) 경복궁 중건 직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복궁 중건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밭은 사라지게 된다. 중건공사가 끝난 시점인 고종 1873년 무렵 고종은 친정을 선언하고, 건청궁을 영건하기 시작했는데²⁵⁾ 향원지가 조성된 것도 이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향원지는 세조가 판 취로정 앞 밭과 농포의 지경을 확장하여 축조한 것으로서, 향원지의 축조로 인해 기존의 후원 농경지 일대는 향원지 안에 함몰되어 멸실되어 버렸다.

경복궁 농경지가 멸실된 방법은 창경궁 후원 농경지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고종이 강제 폐위된 시점인 순종 원년(1907년)에 일제는 답십야미와 관풍각, 전사 일대를 파헤쳐 하나의 큰 연못으로 만들고, 연못의 이름은 춘당대 앞이라 하여 '춘당지'라 명하였다(그림 12 참조). 더욱이 전각들을 해체하면서 나온

그림 12. 창경궁 후원의 답십야미와 백연담의 추정 위치
자료: 수치지형도에 동궐도와 동궐도형을 조응시켜 작도

그림 13. 창경궁 춘당지의 현재 상태

댓돌과 초석을 연못 주변에 둘렀는데, 지금도 그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춘당지 주변에는 왕벚나무를 심고, 내부는 경성시민의 뱃놀하는 유원지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는데, 이로써 조선왕조가 만들어 낸 사민권 농과 술선수범을 상징하는 장이었던 후원 농경지의 자리는 유흥과 오락이라는 세속적인 향락의 장소로 변용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 후원에 위치한 농경지의 조영의 배경과 공간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농본의 의미공간이 되었던 후원 농경지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조선시대 궁궐 내 농경지는 조선 초기에 운영되던 경복궁 취로정 앞 논과 밭, 고종 연간에 조영된 경농재 일곽 내의 논이 있었고, 창경궁 후원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적전 친경의 상징성을 계승하면서 임금의 친히 한 해 농사를 살피는 권농지 역할을 하였다. 궁궐 친림 농경지는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조성되었지만, 모두 애민과 권농의 상징성을 갖고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간구성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유사성이 도출되는 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후원 농경지가 되는 경복궁 취로정 앞 논과 밭은

세종 연간에 개간되었으며, 『농사직설』에 소개된 농법과 작물을 시험재배하기 위한 장소로 조성되었다. 『경복궁전도』를 통해 분석된 결과, 임진왜란 전까지 이 일대에 잔치와 관경(觀耕)뿐만 아니라 사정(射亭)의 용도로 사용된 충순당, 서현정, 취로정, 접송정 등의 정자가 있었고, 관수를 위한 방형의 지당이 농경지 곁에 축조되어 농업용 집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후원 농경지의 위치를 현 경복궁에서 찾아보면 향원지 내부의 공간에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경복궁 중건시 농경지와 인근의 정자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창경궁이 창건되기 이전의 시점인 성종 10년(1479년)에 조영된 후원의 농경지는 「동궐도」를 비롯한 다수의 궁궐 기록화와 도형사료를 통해 옛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도상자료 분석 결과, 창경궁 내전 북쪽에 위치한 농경지는 10~11개로 구획된 수전과 몇 고랑의 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관경대의 기능을 갖는 관풍각과 경성각이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에 있는 백연담은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기능이 있었다. 또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설물도 나타나고 있는데, 차양시설이 있는 전사(田舍)와 모정이 그것이며, 휴식을 위한 녹음수는 주요한 식재특징으로 판단된다.

3. 신무문 밖 후원의 농경지는 경복궁 중건시 조영되었으며, 2차 중건시에 경농재 일곽이 신건되면서 일대의 기능이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1·2차 화재로 인한 내전 일곽의 복구 공사가 지연되어 과거 후원지역이었던 경복궁의 북쪽 영역이 정사의 중심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신무문 밖의 지역이 새로운 후원의 권역이 되었던 배경으로 인한 결과였다. 초창 농경지는 「경복궁후원도」에서 원형(圓形)의 논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원형이었을 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중창된 모습을 보이는 「후원도형」에서는 논이 사다리꼴의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데 8개의 구획으로 구분된 바는 동일하다.

4. 임금이 살피는 후원 농경지가 풍흉을 가늠하는 농정의 맥락으로 운영된 것과는 달리 부식을 위한 실용적 목적의 채전(菜田)이 궁궐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궁궐 내의 채전은 임금의 입머치뿐만 아니라 빈 터로 남아 있던 경복궁을 비롯한 여타의 궁궐과 왕실에서 관리하는 공간의 공터 곳곳에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궁궐의 텃밭조영의 양상은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내포(內圃)라 불린 궁궐 내의 과수원은 국가 제사에 천헌하거나 왕실에 바칠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가꾸어졌는데, 이상의 사례로 볼 때 조선시대의 궁궐이 예제질서를 구현한 엄숙한 위계나 화려한 장식성에 치중되지 않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족적·실용적·생산적 조경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 궁궐에서 후원에 논과 밭을 조성하고, 빈 땅에 양잠을 위한 뽕나무를 식재했던 역사는 동시대의 중국의 자금성과 일

본의 어소에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며²⁶⁾, 조선의 독자적인 궁궐 문화로서 그리고 여타의 유교 국가에는 없었던 유일한 애민농본의 조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생산적 조경(productive landscape)의 실용공간으로서의 후원 농경지는 현대 도시농업의 시효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문문밖 후원의 터는 현재 청와대의 위치가 되는데, 청와대의 조경에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고, 임금이 직접 농사를 체험하는 경농재의 역사성을 계승한 농경지가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지하다시피 수년 전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 앞 마당에 일부 잔디를 뒤엎고 텃밭을 만든 것을 계기로 미국인들 사이에 점차 텃밭 가꾸기 열풍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궁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임금이 술선수범하여 선진 농법을 시험하였다는 점은 자긍심을 주고 있으며, 널리 알려져야 할 우리 왕실의 고유한 문화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궁궐 후원 농경지의 공간에 투영되어 있는 유교적 농본 중심의 공간조영과 국가 운영의 원동력으로 귀결된 권농의 노력이 한층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고에서 거론되지 않은 후원 농경지에 내재된 의미, 기능과 구체적 생활사에 관한 부분은 차후의 연구에서 밝혀지겠다.

주 1. 『성종실록』 6년(乙未, 1475년) 1월 25일(乙亥)

주 2. 궁궐 연구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겠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후원의 농경지는 아직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지시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궁궐 내의 농경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다. 사료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으로, 상림전(上林田), 평전(平田), 공전(公田), 도전(稻田), 농포(農圃), 내포(內圃), 내농포(內農圃), 포전(圃田), 원포(園圃), 내원포(內園圃) 등의 명칭으로 발견되고 있고, 정해진 명칭 없이 임의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연구에서 「동궐도」에 나타난 후원의 논을 ‘권농지’ 혹은 ‘권농장’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자 ‘후원 농경지’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주 3.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인용된 문헌사료는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의 번역을 따랐으며, 궁궐지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1994)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용된 고문헌의 사료는 원문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주 4. 『세종실록』 19년(丁巳, 1437년) 9월 8일(乙未)

주 5. 『세종실록』 11년(己酉, 1429년) 5월 16일(辛酉)

주 6. 『세종실록』 11년(己酉, 1429년) 2월 6일(壬午)

주 7. 이에 대한 기록으로 『세종실록』 14년(壬子, 1432년) 1월 7일(丁卯), 『세종실록』 19년(丁巳, 1437년) 2월 15일(乙亥), 『세종실록』 19년(丁巳, 1437년) 7월 23일(辛亥)의 기사 참조.

주 8. 적전이나 왕실의 경작지는 단순히 농사를 권면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종자의 증식이나 농업기술 문제를 시험하는 장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농사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이어졌다는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이 후원의 수전뿐 아니라 후원 일대를 지금의 농업 시험장처럼 사용하여 종자를 테스트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흉년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한 기록에 주목하였는데, 대상이 되는 작물은 다수가 있을 것이나, 사료에서는 벼, 조, 보리가 발견되어, 당시 수전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한전도 후원에서 운영되

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후원에서 시험한 서속류의 작물이나 종자의 상태에 따른 결실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세종연간만큼은 후원 농경지가 농사직설의 편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종자를 시험해 보는 포지로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종실록』 21년(己未, 1439년) 12월 24일(戊戌), 『세종실록』 23년(辛酉, 1441년) 12월 17일(己酉), 『세종실록』 26년(甲子, 1444년) 윤 7월 25일(壬寅)의 기사를 참조.

주 9. 『세종실록』 19년(丁巳, 1437년) 9월 8일(乙未), 『세종실록』 21년(己未, 1439년) 7월 28일(甲戌)의 기사에서 세종은 여러 종류의 곡식 종자를 새로운 농사법에 의하여 재배해 보고 구체적인 수확량을 점검한 것이 확인되는 바, 세종 때의 후원 농경지가 농사에 적합한 농법을 적용해 보는 시험포지로 활용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주 10. 『세종실록』 31년(己巳, 1449년) 6월 18일(丙寅)

주 11. 『세조실록』 2년(丙子, 1456년) 3월 5일(甲戌)

주 12. 『세조실록』 5년(己卯, 1459년) 4월 22일(癸酉)

주 13. 『중종실록』 13년(戊寅, 1518년) 10월 21일(丁亥)

주 14. 『중종실록』 34년(己亥, 1539년) 4월 12일(己酉)

주 15. 성종대 친경 논의는 성종 5년(1474년) 시강관 이맹현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맹현은 옛 제왕들이 봄소 밭갈이를 하여 자성(稔盛)을 이바지하였다는 것과 한나라 문제가 가의(賈誼)의 말에 감동하여 친경례를 거행한 고사를 인용하여 이미 문구(文具)가 갖추어져 있지만 한 번도 거행하지 않은 친경례를 거행할 것을 건의하였다(이옥, 2004: 299). 즉, 창경궁 북쪽 후원권역에 수전이 조성된 데는 성종 3년 후원에 곡식을 심을 뜻을 밝히고, 5년에 친경례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 6년에 적전에서 친경례를 행한 일련의 수순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 16. 『성종실록』 3년(壬辰, 1472년) 2월 1일(戊辰)

주 17.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태가 변형되고 이름까지 사라져 버린 현 소춘당지를 본래 명칭인 ‘백연담(白蓮潭)’으로 명명하였다. 『궁궐지』 소요정조에는 춘당대 앞의 못을 ‘백연담’이라 지시하고 있고, 『승정원일기』 고종 1년 5월 13일의 기록에서는 춘당대의 연지를 ‘백연지(白蓮池)’라고 칭하고 있는 바, 소춘당지로 변형되기 전의 명칭을 ‘백연담’이나 ‘백연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료에서 백연담이란 용어보다는 ‘춘당대의 연지’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궁궐 안의 못이나 뜰, 공터에 특정 이름을 붙여 그 명칭이 지속된 것보다는 편의에 따라 호칭되거나 잘 알려진 인근 전각 명칭을 통해 지시된 사례가 일반적인 까닭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극히 일부의 사례가 되겠지만 ‘춘당(春塘)’으로 기록된 것도 발견된다. 이 경우는 『궁궐지』의 어체시 중에서만 발견되는 사항으로, ‘훈훈하고 화창한 기운 춘당에 가득하네’, ‘춘당의 붉은 원양새는 아주 서로 좋아하네’, ‘춘당의 외곽 학도 때때로 소리하네’의 용례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춘당대의 못’을 가리켜 ‘춘당’이라는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되므로 백연담의 이명(異名)이 ‘춘당’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춘당대란 말에도 못을 뜻하는 ‘당(塘)’자가 있어, 지당 명칭으로서 ‘춘당’의 가부는 간단하게 판단될 사항은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를 요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주 18. 『승정원일기』 고종 1년(甲子, 1864년) 5월 13일(壬子)

주 19. 서종대친립사연도는 영조가 청계천 춘전에 공이 있는 책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춘당대에서 시사(試射)한 행사에 대한 기록화이프로 백연담 동쪽으로 임금의 과녁으로 짐작되는 큰 과녁[雄猱] 한 개, 작은 과녁 2개와 말 달리며 화살을 쏘는 기사(驕射)의 과녁이 되는 여러 개의 허수아비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정우진, 2011: 53).

주 20. (周公曰 嗚呼) 君子 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 乃逸 則知小人之依 相小人 厥父母 勤勞稼穡 厥子 乃不知稼穡之艱難 乃逸 乃諺 既誕 否則侮厥父母曰 昔之人 無聞知

주 21. 『고종실록』 10년(癸酉, 1873년) 8월 19일(乙未)

주 22. 영조 연간의 경복궁 유지의 활용은 윤정(2005)을 참조.

주 23. 『홍제전서』일독록에서도 백연담의 샘이 거론되어 있다.

주 24. 『珠淵選集』第 13篇 大有軒上樓文

주 25. 일반적으로 건청궁의 건립 시점을 고종 4년(1867년)부터 10년(1873

년) 사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건청궁의 존재가 등장한 최초의 기록인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5월 10일의 기사에서는 건청궁 영건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과 유사(有司: 영건도감)에게 맡기지 않고 임금 개인이 주도한 공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는 영건도감이 이미 해체(1872년)된 후가 되므로 건청궁의 영건공사 시기는 빨라야 고종 9년(1873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 주 26. 중국에서는 북송시대 때 수도 개봉의 황성 내에 농경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정확한 실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후 황궁에 농경지가 운영된 적은 없고, 다만 청나라 건륭제 15년(1750년) 때 이궁인 청의원[이화원]에 강남식 풍치원림의 일환으로 수전이 조성된 적이 있었다. 이곳을 당시에 '경적도(耕織圖)'라 불렀는데, 말 그대로 경적도류의 회화에서 표출된 그림 같은 농경의 경관을 그대로 옮긴 풍경식 원림으로 조성되어 조선시대 궁궐 후원 농경지와는 성격과 실제의 기능면에서 이질적으로 여겨진다. 경적도는 1860년에 연합군에 의해 불타 멸실되었다.

인용문헌

1. 宮闕志(장서각 K2-4363).
2. 김지영(2002) 영조대 친경의식의 거행과 친경의례. 한국학보 28(2): 55-86.
3. 대통령경호실(2007) 청와대와 주변 역사·문화유산. 서울: 대통령경호실.
4. 문화재청(2006)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대전: 문화재청.
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1994) 궁궐지 1, 2.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6. 윤정(2005) 18세기 경복궁 유지의 행사와 의례. 서울학연구 25: 191-225.
7. 이육(2004) 조선시대 친경례의 변천과 그 의미. 종교연구 34(1): 289-322.
8. 이찬, 양보경(1995) 서울의 옛 지도.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9. 이혜원(2008) 경복궁 중건 이후 전각구성의 변화.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정우진(2011) 동궐 후원의 변천과정과 원형경관 해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정우진, 심우경(2011) 창경궁 후원이용의 역사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71-89.
12. <http://db.itkc.or.kr>

원 고 접 수 일: 2012년 5월 10일
 심 사 일: 2012년 6월 14일(1차)
 2012년 8월 19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2년 8월 25일
 4 인 의 명 심 사 필